

## RI면허시험 대비 단기강좌 개최



협회 부설 동위원소교육연구원은 4. 7(일) 실시될 “제57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시험” 응시자의 시험에 대비한 단기강좌를 협회 강의실에서 3. 6(수)부터 8(금)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원자력기초이론의 물리분야(한국원자력연구소 조성원박사) 화학, 생물분야(협회 교육연구원 김재록박사), 방사선취급기술기초(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이재기교수), 방사선장해방어기초(전 한국원자력연구소 노성기박사), 원자력법령(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기준실 김창범)이 강의되었으며 이번 단기강좌에는 77명이 참석하였다.

## RI일반면허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지난 3. 11(월)부터 13(수)까지 수도권지역의 시험응시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57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시험의 원서교부 및 접수를 협회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총 1,303명이 접수하였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 주관으로 4. 7(일)에 충북대학교 문과대학에서 시행된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9시30분까지 입실하여 1교시 원자력관계법령과 방사선취급기술기초, 2교시 방사선장해방어기초와 원자력기초이론을 치르게 된다. 합격자 발표는 4. 23(화)부터 24(수)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며 합격여부의 확인은 ARS(대전, 충남지역 700-1903, 기타지역 042-700-1903)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http://license.kins.re.kr>)를 이용하면 된다.



## 방사선면허자 모임안내

협회는 2002. 5. 3(금) 오후2시 서울소재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2층 대강당에서 방사선관련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면허자모임(가칭)”을 창설할 예정이다.

동 모임은 협회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권익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방사선관련면허자의 권익과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이번 첫 모임 행사를 통하여 동 모임의 명칭, 운영방법, 협회의 지원범위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참석한 면허자 들의 토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협회는 동 “면허자모임”이 대부분의 면허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운영되길 기대하며, 면허자로서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자율적 운영으로 자율안전관리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통한 RI이용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과학기술부

###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정책 및 연구분과 소위원회 개최 -원자력 파크 및 첨단 방사선기술(RT) 파크 조성방안 등 협의-

원자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위원장 : 이창진)는 3.22(금) “원자력정책 및 연구개발분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파크 조성방안 연구」와 「첨단 RT-Park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진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 김덕지 사장, 한국전력기술(주) 박용택 사장, 원자력연구소 박창규 단장, 호서대 박헌휘 교수, 안전기술원 이종인 부장, 인하대 최순자 교수 등 7명의 위원과, 과기부 관계관 및 전북대, 연세대 등 관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원자력 관련 산업체를 한 지역에 집중시켜 연구·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원자력 지식 클러스터” 구축방안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중심의 연구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국민홍보 및 체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첨단 방사선단지 조성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 한국원자력연구소

###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이용 교육 활기

국내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는 오는 29일(금)까지 원자력연수원에서 '중성자 라디오그래피 비파괴검사 시험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월) 밝혔다. 중성자 라디오그래피는 중성자를 이용한 방사선 투과법으로써 검사품을 투과한 중성자선의 변화를 이용해서 사진필름을 영상화시키거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중성자 라디오그래피 기법을 이용하면 기존의 초음파나 X선을 이용한 비파괴 검사법에 비해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소측의 설명이다.

또 원자력연수원에서는 오는 29일까지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로실험, 실습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원자력공학 전공자는 물론 이공계 대학생에게 원자력기반기술을 알리고 체험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금)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사람 몸안에 있는 극미량의 원소를 검출할 수 있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기술 전문 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제17회 한국원산/원자력학회 연차대회 개최

한국원자력산업회의(회장:최수병) 및 원자력학회(회장:신재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7차 연차대회'가 4. 18(목), 19(금) 이틀동안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차대회의 주제는 '새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원자력'으로 세계 12개국 전문가 500여명이 참석, 총 66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18(목)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알바라데이 사무총장 △프랑스원자력청 파스칼 코롬바니 청장 △중국국가원자능기구 장후주 주임 △미국원자력학회 가일 마르구스 회장 △세계원자력협회 존

B. 리츠 사무총장 △한국정치학회 이정복회장(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이 원자력사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각각 특별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이와 함께 △IAEA 전풍일 원자력발전국장 △프랑스 원자력청 자크스 부샤드 국장 △미국 웨스팅하우스 레지스 매치 수석부사장 △프랑스 프라마툼 버나드 에스페브 연료담당부사장 △수이온 영국핵연료공사 기술운영이사를 비롯해 캐나다원자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고위 담당자가 자국의 미래형 원자로 개발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19(금)에는 한수원이 자체 개발한 신형경수로1400에 대한 관련 기술을 소개하는 특별세션을 마련, 해외 전문가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원전 건설, 운영, 정비는 물론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등 각분야에서 국내 22편, 국외 44편 등 총 66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연차대회 기간동안 국내외 원전 산업체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전시회가 개최된다. 또 18일 식전행사로 제9회 원자력기술상 시상식을 개최, 관련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 중성자 라디오그래피 국내 첫 개발

한국원자력병원(원장: 심윤상)은 사이클로트론(입자가속기)을 이용한 중성자 라디오그래피(비파괴 검사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화) 밝혔다.

한국원자력병원 사이클로트론 응용연구실 채종서 박사팀이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양대 방사선안전 신기술연구센터(센터장 : 김종경)와 공동으로 개발한 중성자 라디오그래피는 중성자를 검사대상물에 쏘아 내부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써 검사대상을 투과한 중성자선을 필름에 노출시켜 영상화하는 방식이다.

중성자 라디오그래피는 엑스선이나 감마선을 이용한 장치보다 투과력이 높아 고정밀 검사를할 수 있다는데 장점으로 엑스선과 감마선 장치로 분석하기 어려운 중장비 항공기 등 대형 장비를 손쉽게 검사할 수 있다. 또한 화약이나 마약까지 찾아낼 수 있어 공항 검색대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 박사팀은 “이번에 개발한 중성자 라디오그래피는 가격이 7억원으로 수입산과 비교해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